

# 국내 청년층의 지역별 고용률에 대한 통계정보 서비스 분석

박 종 태\*

## 목 차

요약	2.2 권역별 비교분석
1. 서론	3. 결론
2. 지역별 고용률과 상대비율	참고문헌
2.1 전체연령층과 청년층의 비교분석	Abstract

##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청년층의 고용통계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각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주로 실시한 결과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조직에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큰 틀에서의 정책은 물론 각 단위 조직의 세부적인 정책에서의 적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16개 시·도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지역을 분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전체 연령층 및 청년층의 고용률을 도출한 다음, 전체 연령층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층의 고용률은 모든 지역이 시간적인 추이에 변화가 없는 반면에, 청년층 고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근에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률 통계와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제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상대비율*

접수일(2013년 3월 10일), 수정일(1차: 2013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20일)

\* 평택대학교 디지털응용정보학과 교수, jtpark@ptu.ac.kr

## 1. 서론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였으며, 각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환경은 대량실업의 발생과 실업률증가로 연결되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증가는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인적동력자원의 사회진입 및 동력의 역할의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에서는 청년들의 재취업 및 신규취업을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고용 관련 현황 및 각종 정책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지역별 비교분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하는 이유는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정책이 지역별로 시차적 내지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별 정책 및 예산 배정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이것은 실업률 못지않게 국가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중의 하나이다. 각 국가는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감소에 직면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중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요구하고 있기에 보다 정밀한 대응정책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응정책의 마련에 기초가 되는 것이 각국의 고용과 관련된 각종 통계일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년고용에 대한 지역별 비교는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청년고용률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청년실업이나 고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청년실업의 실태와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로는 청년

실업 원인과 해소방안과 관련된 최영섭[11], 김석진, 양희승[5], 정인수, 김기민[10], 김용성[6], 강영주[1], 의 연구가 있으며, 각 지역별 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연구로 박희석, 한진아[8], 곽태열[2]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김기호, 장동구[3]가 노동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실업률 이외에 고용률의 노동시장에서의 정보변수로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대일[4]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분석한 것이 있으며, 문외술[7]이 노동시장 변수들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확률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시장의 지역 간 비교를 실증 분석한 연구로는 전병유[9]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고용성장 요인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있어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에 대한 상대비율을 계산하고, 16개 시도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전체연령층 및 청년층의 고용률과 그 상대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각 지역별로 청년층의 고용률과 그 상대비율에 대한 계산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최근 11년간(2001~2011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다. 논문의 제 2.1절에서는 각 권역별로 전체연령층의 고용률과 청년층의 고용률 및 전체 고용률에 대한 상대비율의 크기와 시기별 변화를 제시하였고, 제 2.2절에서는 권역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 2. 지역별 고용률과 상대비율

### 2.1 전체연령층과 청년층의 비교분석

먼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국에 대한 고용률 통계

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은 전국에 있어서 전체연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률 통계자료이며,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고용률은 11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청년 고용률은 200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05년 이후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고용률에 대한 청년 고용률의 상대비율도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1. 전국에 대한 고용률과 상대비율

Tab. 1. Employment Rate and Relative Ratio by Overall Province

년도	고용률		상대비율
	전체	청년층	
2001	59.0	44.0	74.6
2002	60.0	45.1	75.2
2003	59.3	44.4	74.9
2004	59.8	45.1	75.4
2005	59.7	44.9	75.2
2006	59.7	43.4	72.7
2007	59.8	42.6	71.2
2008	59.5	41.6	69.9
2009	58.6	40.5	69.1
2010	58.7	40.3	68.7
2011	59.1	40.5	68.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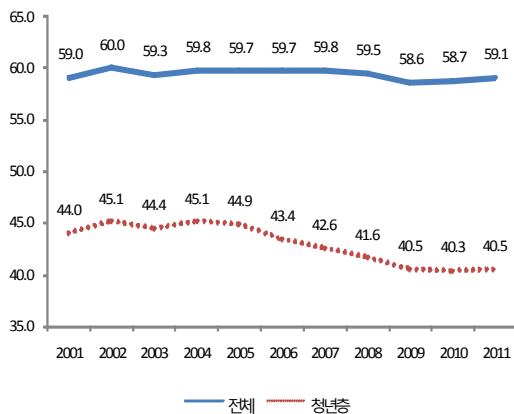


그림 1. 전국에 대한 고용률 그래프

Fig. 1. Employment Graph by Overall Province

다음은 고용률을 기준으로 국내의 행정구역상 16개 시·도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분류한 다음, 각 권역에 있어서 전체연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취업자 수를 계산하여 각 지역에 대한 고용률과 상대비율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도권에 대한 고용률 통계표와 비교 그래프는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표 2. 수도권에 대한 고용률과 상대비율

Tab. 2. Employment Rate and Relative Ratio by Capital Province

년도	고용률		상대비율
	전체	청년층	
2001	59.3	47.3	79.8
2002	60.0	47.8	79.7
2003	59.4	47.3	79.7
2004	60.1	48.3	80.3
2005	60.0	48.3	80.5
2006	60.1	46.8	77.8
2007	60.1	46.1	76.6
2008	59.8	44.7	74.7
2009	58.6	43.2	73.8
2010	59.0	43.2	73.3
2011	59.4	43.7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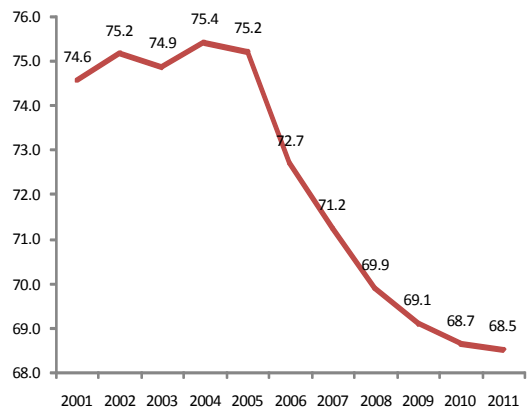


그림 2. 전국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

Fig. 2. Relative Ratio of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Overall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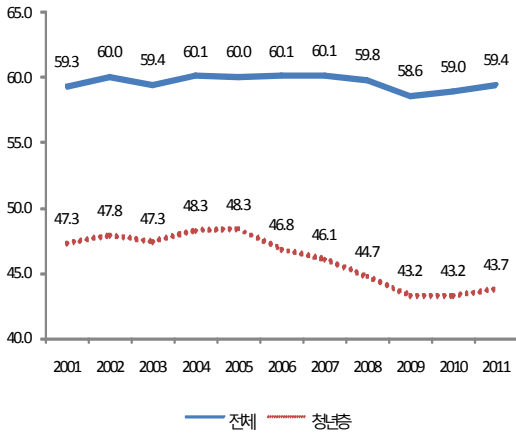


그림 3. 수도권에 대한 고용률 그래프

Fig. 3. Employment Graph by Capital Province

그림 3에서 수도권에 대한 고용률 그래프를 보면 전국과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5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고 상대비율도 점점 줄어들다가 2009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권의 경우에는 표 3과 그림 4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4

표 3. 강원권에 대한 고용률과 상대비율

Tab. 3. Employment Rate and Relative Ratio by Gangwon Province

년도	고용률		상대비율
	전체	청년층	
2001	56.6	38.9	68.6
2002	58.4	40.4	69.2
2003	57.2	38.8	67.8
2004	57.9	40.4	69.9
2005	57.5	40.1	69.6
2006	58.2	39.3	67.5
2007	57.7	36.0	62.5
2008	57.7	37.3	64.6
2009	57.8	37.9	65.5
2010	56.2	36.6	65.2
2011	56.4	35.3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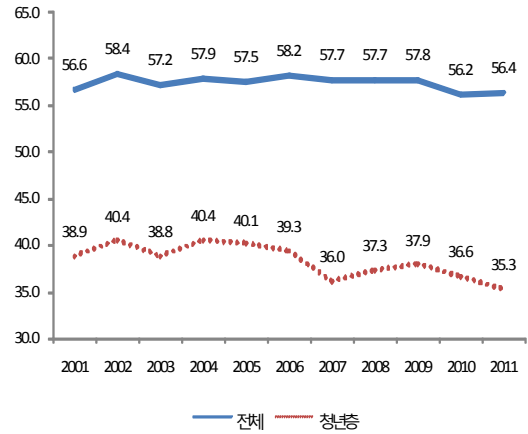


그림 4. 강원권에 대한 고용률 그래프

Fig. 4. Employment Graph by Gangwon Province

년 이후부터 감소, 증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수도권과 달리 2009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 4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권 지역은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충청권에 대한 고용률과 상대비율

Tab. 4. Employment Rate and Relative Ratio by Choongcheong Province

년도	고용률		상대비율
	전체	청년층	
2001	58.8	41.2	70.1
2002	60.5	43.1	71.4
2003	59.2	42.5	71.7
2004	59.9	42.7	71.3
2005	59.2	42.0	70.9
2006	59.7	42.0	70.3
2007	60.4	40.3	66.7
2008	59.9	38.6	64.5
2009	59.2	38.2	64.6
2010	59.1	39.8	67.4
2011	59.5	39.6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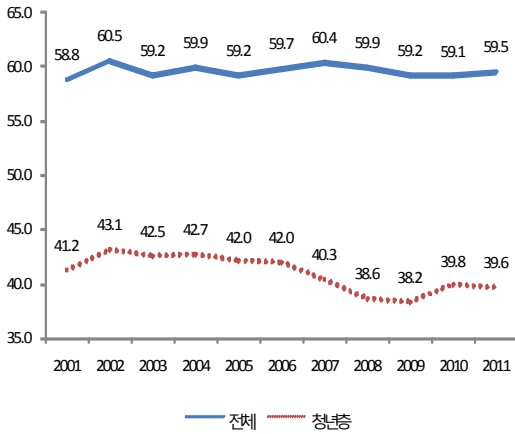


그림 5. 충청권에 대한 고용률 그래프

Fig. 5. Employment Graph by Choongcheong Province

다음으로 표 5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권 지역은 2003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6과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남권 지역은 호남권과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 5. 호남권에 대한 고용률과 상대비율

Tab. 5. Employment Rate and Relative Ratio by Honam Province

년도	고용률		상대비율
	전체	청년층	
2001	59.4	39.1	65.9
2002	60.0	39.6	65.9
2003	60.0	40.0	66.7
2004	59.7	38.8	65.0
2005	60.1	38.1	63.3
2006	60.2	36.7	61.0
2007	60.7	36.7	60.4
2008	60.5	35.8	59.1
2009	60.4	35.0	58.0
2010	59.4	34.6	58.3
2011	59.6	34.3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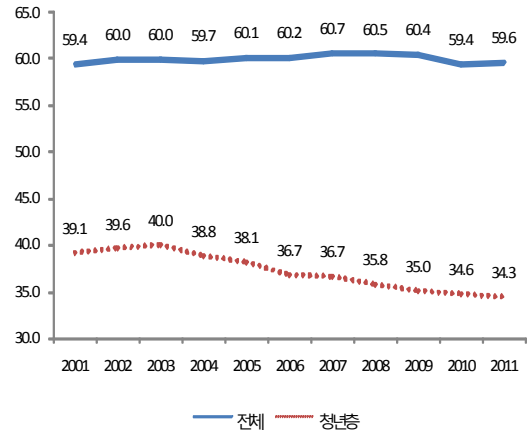


그림 6. 호남권에 대한 고용률 그래프

Fig. 6. Employment Graph by Honam Province

있다. 또한, 5개 권역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다소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고, 강원권과 호남권, 영남권이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최근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두 권역 간의 차이로 할 수 있다.

표 6. 영남권에 대한 고용률과 상대비율

Tab. 6. Employment Rate and Relative Ratio by Youngnam Province

년도	고용률		상대비율
	전체	청년층	
2001	58.6	41.6	70.9
2002	60.1	43.4	72.3
2003	59.1	42.1	71.3
2004	59.5	43.1	72.4
2005	59.2	42.2	71.2
2006	59.0	40.1	67.9
2007	58.9	39.4	66.9
2008	58.7	39.0	66.4
2009	57.9	37.9	65.6
2010	58.0	37.0	63.7
2011	58.2	36.6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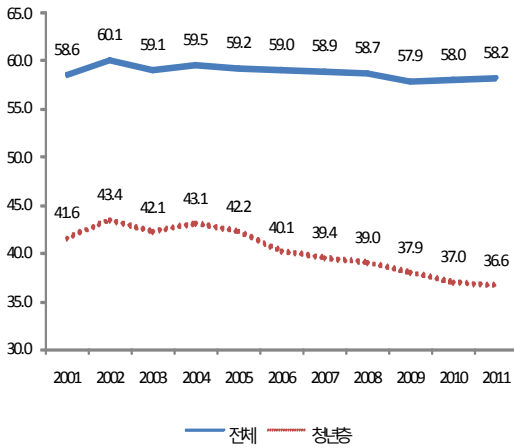


그림 7. 영남권에 대한 고용률 그래프  
Fig. 7. Employment Graph by Youngnam Province

## 2.2 권역별 비교분석

이제 전체연령층 및 청년층의 고용률에 대해서 5개 권역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림 8은 전체연령층의 고용률을 5개 권역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고, 그림 9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5개 권역으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8에서 전체 고용률을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남권, 강원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고용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5개 권역 모두 고용률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도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고용률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연령층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은 최근의 청년층 고용률 추이가 5개 권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은 최근에도 계속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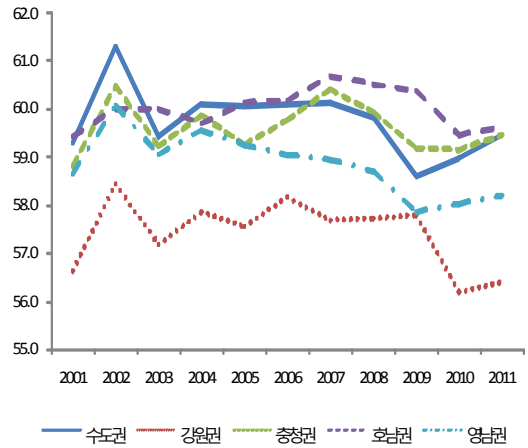


그림 8. 권역별 전체연령층의 고용률  
Fig. 8. Total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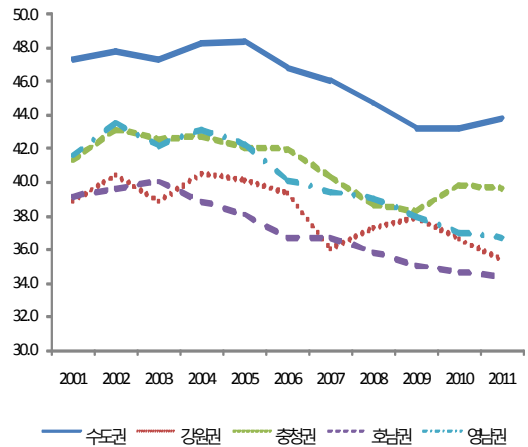


그림 9. 권역별 청년층의 고용률  
Fig. 9.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

아울러 표 7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5개 권역에 있어서 전체연령층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의 크기를 비교한 표이다. 또한, 시각적인 비교를 위해 5개 권역별로 이 상대비율 자료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해보면 그림 10과 같다. 이 그림을 보면 상대비율의 크기가 그림 9에서 나타난 청년층의 고용률과 비슷하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호

남권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수도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통계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은 증가세로 전환됨을 보이나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각 권역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7. Relative ratio of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

년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2001	79.8	68.6	70.1	65.9	70.9
2002	79.7	69.2	71.4	65.9	72.3
2003	79.7	67.8	71.7	66.7	71.3
2004	80.3	69.9	71.3	65.0	72.4
2005	80.5	69.6	70.9	63.3	71.2
2006	77.8	67.5	70.3	61.0	67.9
2007	76.6	62.5	66.7	60.4	66.9
2008	74.7	64.6	64.5	59.1	66.4
2009	73.8	65.5	64.6	58.0	65.6
2010	73.3	65.2	67.4	58.3	63.7
2011	73.6	62.6	66.5	57.6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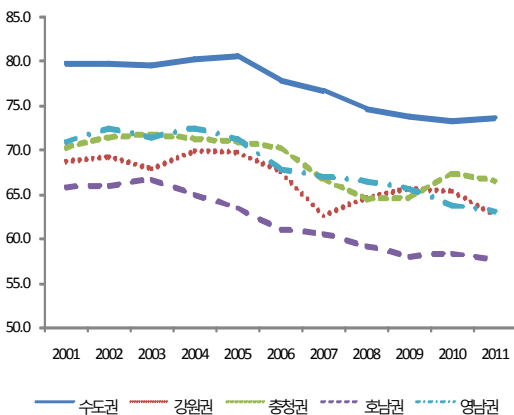


그림 10. 청년층 고용률의 권역별 상대비율 그래프  
Fig. 10. Relative ratio Graph of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Provincial Region

마지막으로 5개 권역 중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도권과 가장 낮은 호남권의 고용률 통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먼저 수도권에 속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역에서의 청년층의 고용률과 그 상대비율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 8은 수도권에 속한 3개 지역별로 청년층의 고용률을 나타낸 표이고, 이 3개 지역에 대한 청년 고용률의 그래프를 작성해 보면 그림 11로 나타난다.

표 8.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의 고용률  
Tab. 8.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Capital Region

년도	서울	인천	경기
2001	47.5	46.3	47.4
2002	47.6	46.1	48.5
2003	48.1	45.6	46.9
2004	48.9	47.2	47.9
2005	49.2	45.6	48.1
2006	47.5	45.2	46.4
2007	47.6	44.4	45.0
2008	46.0	44.0	43.6
2009	44.0	44.3	42.2
2010	43.6	44.1	42.7
2011	45.1	43.1	42.8

표 8과 그림 11을 보면 3개 지역 모두 지난 11년 동안 청년 고용률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청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200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증가로 돌아섰고, 경기도는 2005년부터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인천은 200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이 다른 두 지역보다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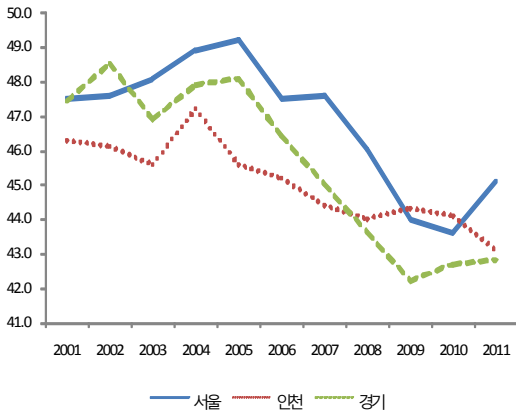


그림 11.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의 고용률 그래프  
Fig. 11. Young man's Employment Rate Graph by Capital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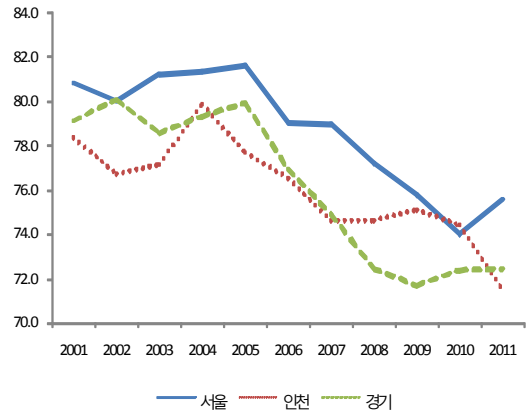


그림 12.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 그래프  
Fig. 12. Relative Ratio Graph of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Capital Region

표 9.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9. Relative Ratio of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Capital region

년도	서울	인천	경기
2001	80.8	78.3	79.1
2002	80.0	76.7	80.0
2003	81.3	77.2	78.6
2004	81.4	79.9	79.3
2005	81.6	77.7	79.9
2006	79.0	76.5	76.9
2007	78.9	74.6	74.9
2008	77.2	74.6	72.4
2009	75.7	75.1	71.6
2010	74.0	74.4	72.4
2011	75.5	71.5	72.4

또한, 전체연령층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을 수도권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그림 12로 나타난다. 이 표와 그림을 보면 상대비율도 청년층 고용률 자체의 통계와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0은 호남권에 해당되는 4개 지역에 대한 청년층의 고용률을 나타낸 표이고 그림 13은 각 지역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그래프이다

표 10. 호남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의 고용률  
Tab. 10.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Honam Region

년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001	39.8	36.2	38.8	48.3
2002	40.7	35.8	39.8	48.2
2003	38.4	37.1	40.9	51.5
2004	38.1	35.9	39.3	48.1
2005	37.9	34.2	38.5	49.8
2006	35.9	31.9	38.1	50.1
2007	36.0	33.2	36.8	48.4
2008	36.2	32.2	34.7	47.2
2009	37.0	29.5	35.4	43.8
2010	38.1	30.5	33.6	39.3
2011	37.6	29.2	33.4	41.5

이 표와 그림으로부터 청년 고용률의 시간적인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03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들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점은 제주와 광주는 최근에 증가세로 전환됨을 보이거나 전북과 전남의 경우는 2011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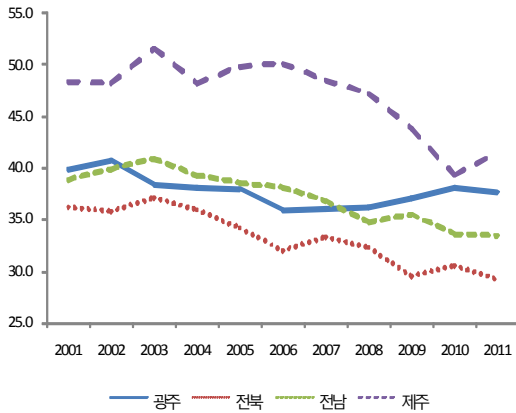


그림 13. 호남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의 고용률 그래프  
Fig. 13. Young man's Employment Rate Graph by Honam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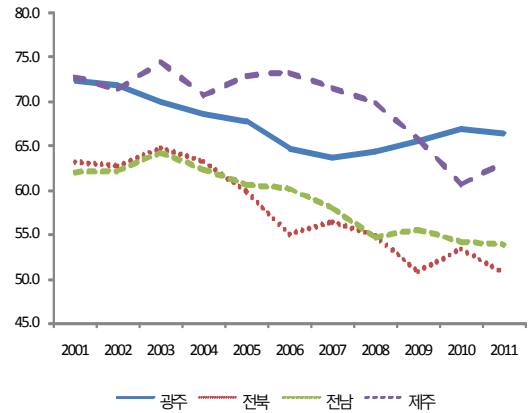


그림 14. 호남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 그래프  
Fig. 14. Relative Ratio Graph of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Honam region

표 11. 호남권 지역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  
Tab. 11. Relative Ratio of Young man's Employment Rate by Honam region

년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001	72.4	63.2	62.0	72.6
2002	71.8	62.7	62.2	71.3
2003	69.9	64.6	64.2	74.4
2004	68.6	63.1	62.3	70.7
2005	67.7	59.7	60.5	72.9
2006	64.7	55.0	60.1	73.1
2007	63.7	56.3	57.9	71.5
2008	64.3	54.9	54.6	69.8
2009	65.6	50.7	55.5	65.7
2010	66.8	53.2	54.1	60.6
2011	66.4	50.5	53.8	63.1

아울러 표 11과 그림 12는 전체연령층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을 호남권 각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와 그림을 보면 상대비율의 시간적인 추이가 청년층의 고용률 통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와 광주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전북과 전남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비율에 대한 최근의 추

이를 살펴보면 청년층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제주와 광주는 증가세로 전환됨을 보이거나 전북과 전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3. 결론

최근 11년 동안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에 대한 고용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연령층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 고용률 통계를 다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해 보면 전체 고용률에 있어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남권, 강원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강원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청년 고용률에 있어서는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강원권 > 호남권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도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청년 고용률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고

용에 대한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고용률에 대한 청년 고용률의 상대비율을 조사해보면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강원권 > 호남권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증가세로 전환됨을 보이거나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청년층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시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의 청년 고용률이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수도권 지역 거의 대부분 2005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의 청년 고용률은 최근 1~2년 동안 증가세를 보임은 다행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청년층 고용률이 가장 낮은 호남권의 경우에는 제주의 청년 고용률이 다른 호남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호남권 지역 거의 대부분 2003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청년 고용률의 감소 추세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와 광주 지역에서는 가장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는 청년층의 고용통계와 관련된 사례이지만 앞으로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학력수준별 등 다양한 인구특성에 따른 그룹별로 고용률의 상대비율을 추정하여 고용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통계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1] 강영주 (2009), 청년실업 해소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2] 광태열 (2009), 경남의 청년실업 해소방안, 『이슈분석』, 경남발전연구원.
- [3] 김기호, 장동구 (2005),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경제분석』, 11(2), 106-135.
- [4] 김대일 (2000), 한계적 경제활동참가자와 실업, 『한국경제의 분석』, 6(1), 1-68.
- [5] 김석진, 양희승 (2004), 청년실업 증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 [6] 김용성 (2008),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7] 문외술 (2008), 한국 노동시장 변수들의 단기변동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경제분석』, 14(4), 113-150.
- [8] 박희석, 한진아 (2008), 서울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고찰, 『서울경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9] 전병유 (2006),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68, 205-234.
- [10] 정인수, 김기민 (2006),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과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11] 최영섭 (2004),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12] 통계청 (2011), 『2011 경제활동인구연보』.



**박 종 태 (Jong T. Park)**

한국과학기술원 응용수학과에서 전산통계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평택대학교 디지털응용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계청에 재직하였으며, 관심분야는 회귀분석, 선형모형, 소지역추정 등이다. 주요 논문은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응용통계연구, 지식서비스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자료분석학회지, 한국지역경제연구, 통계연구 등의 학술지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자료분석학회, 한국통계학회 등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 The Analysis on the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or Regional Employment–Population Rate of Young Man in Korea

Jong T. Park\*

## ABSTRACT

It is important for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about employment–population rate of young man and total employment–population rate to a policy data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an use policies distinctively according to the region and keep the efficiency of detail policy application.

This study shows that we classify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Gangwon, Choongcheong, Honam, Youngnam region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and calculate total employment–population rate and employment–population rate of young man for these regions, and then compute the relative ratio between these employment–population rates, and finally compare the relative ratio by these regions. According to main results of this article, total employment–population rates in all the regions have not changed, whereas employment–population rates of young man have been decreased in all the regions but the rate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Choongcheong region have been increased for recent years. Moreover the changes by period of the relative ratio have been almost same as that of young man’s employment–population rate.

*Keywords: Young M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population Rate, Relative Ratio*

---

\* Pyeongtaek University, Department of Digital Information and Statistics, Professor, jtpark@ptu.ac.kr